

대한 일고찰(一考察)

권 동 현*

目 次

- 1. 서론(序論)
 - 2. 본론(本論)
 - 2.1. こう 2.4. さやう
 - 2.2. かやう 2.5. どう
 - 2.3. そう 2.6. どうもこうも
 - 3. 결론(結論)
-

1. 서론(序論)

일본어사에 있어서 고대어와 근대어의 경계를 무로마치 말기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근대어의 시초는 원정기(院政期)이며, 고대어적 양상의 후퇴와 근대어적 양상의 발현(發現)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어사 쪽에서는, 물론 정치사의 시대구분과 마찬가지로 명확하지는 않다. 자연히 자료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것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日葡辭書』(1603年刊), 로드리게스의 『日本大文典』(1604-1608年刊), 『捷解新語』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간행·성립·서사(書寫)는 모두 1600년경이므로 무로마치 말기의 일본어를 반영하고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시기는 언문(言文)이 일치하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구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무로마치 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抄物』 『吉利支丹物』 『古本能言集』 등 구어의 자료를 들 수 있다.¹⁾

조선왕조 사역원에서 만들어진 『捷解新語』는 강우성에 의한 원간본과 개정본인 개수본, 중간본으로 이루어진 당시의 일본어 학습서라고 할 수 있다. 『捷解新語』 원간본(1676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일어학

1) 櫻井光昭(1971)『講座國語史5 敬語史』大修館書店 pp.185~186 參照

刊行)과 개수본(1748刊行)·중간본(1781刊行)은 같은 내용이 약 100년 이상의 차이를 두고 간행되어, 일본 중세말기부터 근세에 걸친 일본어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¹⁾

濱田氏は 각 판본들이 반영하는 언어의 시대적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

“原刊本は、日本語の、いまだ古代語的な形を多分に保存する、中世末、安土、桃山時代頃の姿を反映しているのに對し、重刊改修本は、それよりも一世紀以上も降った、江戸時代中期頃の、近代語の成立した時期のそれを反映しているとするならば、その兩者を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古代、近代兩言語の時代的乃至文體的差異を把える。”

그리고 改修本の 범례에 다음과 같은 기술(記述)이 있다.

彼語則古今廻異使彼人讀之或有不知其爲何語者
故就其中古今無別者略存之餘悉改正所改者十之八九 (序五)

일본어는 옛말과 지금의 말이 서로 달라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읽힌다면
혹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것(자)이 있다.
그러므로 그 중에서 옛것과 지금 것의 구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개정하니, 고친 것이 심중판구이다. (저자 譯)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간본을 중심으로 개수본, 중간본의 세 가지 판본을 한국어와의 대역을 통해 비교·대조해 봄으로써 어형(語形)의 변화를 찾아보고 조사함으로써 지시부사의 양상과 변천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본론(本論)

1) 李康民(1996)은 원간본과 개수본 사이의 100년 동안에 진행된 일본어의 변화가 본 자료에 반영되어 있어, 일본어사 연구의 제(諸)문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또한 근대어적인 어형(語形)들이 개수본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다면 양자를 대조·검토하는 일은 현대어로 변해 가는 일본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언급한 바 있다.

李康民(1996) 『『捷解新語』와 日本語史』 『漢陽 日本學』漢陽日本學會 第4輯 p.24

2) 濱田 敦(1983)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岩波書店 p.47

일반적으로 「こう, そう, どう」는 부사로서 취급하고 있으며, 時枝誠記는 『日本文法口語篇』³⁾에서 부사적 대명사라 명명하여 「この, こんな」류의 연체사적 대명사 「これ, ここ」 등의 명사적 대명사와 병행해서 대명사로서 인정하고 있다.

반면 三宅武郎은 『音聲口語法』⁴⁾에서 지시부사 「こう, そう」와 의문부사 「どう」를 형식부사의 하위분류로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松下大三郎⁵⁾은 「こう, そう」의 가나표 기법을 주장하기 위하여 어원(語源)의 체계로서

「此-此れ-此ら-此の-此う-此んな」

「其-其れ-其ら-其の-其う-其んな」

「彼-彼れ-彼ら-彼の-彼う-彼んな」

「何-何れ-何ら-何の-何う-何んな」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문어(文語)에서는 「かく」「さ」「しか」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지 않고 어떤 정태(情態)를 지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맥 혹은 장면에 따라 다르다. 보통은 정태부사의 일종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본고는 三宅武郎의 설에 따라 지시부사라 명명하기로 하고 「かやう」「さやう」와 관련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조사방법으로서는 「安田 章」의 분류원칙⁶⁾을 참고하여 原刊本을 중심으로 보면

- A. 改修本에서 原刊本에 해당하는 예가 없고 그 모습을 감춘 것
- B. 改修本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 C. 改修本에서 다른 단어로 바뀐 것

반대로, 改修本에 초점을 맞추면

- A' 原刊本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고 改修本에 나타난 것
- B' 原刊本대로 나타나는 것
- C' 原刊本の 다른 단어에서 바뀐 것

또한, 原刊本, 改修本에는 없고 重刊本에만 나타나는 것 등으로 분류해 보기로 한다.

- 지시부사의 구체적 용례는 먼저 原刊本, 改修本, 重刊本の 순으로 대조시켜 한 조로

3) 時枝誠記(1950) 『日本文法 口語篇』岩波全書 pp.66~67

4) 三宅武郎(1934) 「音聲口語法」 『國語科學講座7』明治書院 p.35

5) 松下大三郎(1930) 『標準日本口語法』中文館書店 p.110

6) 安田 章(1980) 「捷解新語の改訂覺書」 『朝鮮資料と中世國語』笠間書院 p.168 參照

했고, 1권에서 10권의 순으로 배열했다.

- 原刊本에 있는 부분이 改修本 혹은 重刊本에서 삭제되어 있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인 경우 각각을 「· · · ·」로 표시했다.
- 본문을 인용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밑줄 치고 그 옆에 한국어역을 기입했다.
- 본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원문표기 그대로 했지만 「御」「申」「候」 등은 현행 한자표기로, 그 외는 「ひらがな」로 표기 했다.

조사에 있어서는 먼저 『時代別國語大辭典』 『朝鮮語大辭典』 등 현대의 사전류를 중심으로 어의(語義)를 조사한 후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전과 비교하면서 의미를 조사해보기로 한다.

용례분석에는 『捷解新語』와 마찬가지로 무로마치 말기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日葡辭書』 『日本大文典』 등을 이용하고, 국내사전으로는 『李朝語辭典』 『17세기 國語辭典』 『우리말 큰사전』을 참고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약호(略號)를 사용하기로 한다.

『日葡』	土井忠生譯(1980)『邦譯日葡辭書』岩波書店
『日本大文典』	土井忠生譯(1955)ロドリゲス『日本大文典』三省堂
『時代別』	室町時代語辭典編修委員會編『時代別國語大辭典』三省堂
『朝鮮語』	大阪外國語大學朝鮮語研究室編(1986)『朝鮮語大辭典』角川書店
『李朝語』	유창돈(1964)『李朝語辭典』연세대학교출판부
『17세기』	홍운표 외(1995)『17세기 國語辭典』태학사
『우리말』	한글학회(1992)『우리말 큰사전』어문각

2.1. 「こう」

먼저 사전적 어의를 살펴보면 『時代別』에는 「こう」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かう(斯)」 ㉞ 「かく」의 음편형이며 『日葡』에는 「CŎ」(カウ)㉞このように、こんなぐあい。로 되어 있다.

2.1.1. 원간본 중심

원간본 \ 개수본	こう	かやう	このうゑ	そう
こう(22)	6	14	1	1

원간본을 중심으로 형태적으로 보면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총22례가 존재하는데 예1)과 같이 개수본에서 그대로 쓰인 6례와 예2)와 같이 「かやう」로 바뀌어 쓰인 14례, 예3)과 같이 「このうゑ」로 바뀌어 쓰인 1례, 예4)와 같이 「そう」로 바뀐 1례 등을 찾아볼 수가 있다. 「こう」에 해당하는 한국어 대역은 모두 「이리」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李朝語』에서 찾아보면 ㉠이리, 여기, 『17세기』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말』에는 「이곳으로, 이쪽으로」되어 있다. 또한, 『朝鮮語』에서 찾아보면 ㉠①ここに(へ)、こちらに(へ)②このように(이리하여)、こんな、こう.로 되어 있어 의미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예1) (原) しせんこう申おりもんちにおほしめすかたも御さろうかと(9-5ウ) 이리
 (改) しせんこう申おりもしにおほしめすかたも御さろうかと(9-8) 이리
 (重)
- 예2) (原) こうするわかみかたゑちうしんも申(5-4) 이리
 (改) かやうにいたしまするわかみかたゑちうしんもいたし(5-5ウ) 이리
 (重) かやうにいたしまするわかみかたゑちうしんもいたし(5-5) 이리
- 예3) (原) こう申うゑわこなたしたいにめされ(9-8ウ) 이리
 (改) このうゑわこなたしたいにめされい(9-12ウ) 이리
 (重)
- 예4) (原) かたからこうあろうかとおもうて(5-29ウ) 이리
 (改) かたからそうあろうとおもうて(5-43) 그리
 (重)
- 예5) (原) こうおしらるか御もつともて御さる(7-11) 이리
 (改) かやうにおおせられまするか御もつともて御さります(7-16ウ) 이리
 (重) おおせられまするたうり御もつともて御さります(7-8ウ)

위의 예5)의 경우는 원간본의 「こう」가 개수본에서 「かやうに」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

는 다음의 예와 같이 의미적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人ヲ偶人ノ代管ニシテ打タセテ、其ガマケツレバ罰スルゾ。カウスル心ハ天ニ勝ト云心ゾ
(史記抄二)

예6) (原) こうとうらしられ(5-1ウ) 이리
(改) こう御とうりなされませい(5-2) 이리
(重) こう御とうりなされませ이(5-2) 이리

위의 예6)의 경우는 원간본의 「こう」가 개수본 및 중간본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예와 마찬가지로 장소 내지 방향을 나타내는 「이쪽으로, 여기로, 이리로」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さあらばかうござれ(虎明狂=鼻取相撲)

또한 「こう」는 문어(文語)에서는 「か」「かく」의 형태로 사용되지만 그 중 「かく」는 원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총3예가 나타나는데, 이는 개수본 및 중간본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으며, 10권의 소로문체(候文)의 서간문에만 보여진다. 이것은 모두 「かくのことに候」「かくのことに御さ候」의 형태로 쓰이고 있어 일종의 관용구에 한해서 쓰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그것이 다른 자료 등에 의해 보다 일반적인 현상인 경우가 확실해 진다면 「かく」는 관용구를 제외한다면 당시의 구어(口語)에서 존재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1.2. 개수본 중심

- 표2 -

	중간본	こう	삭제
개수본		2	4
	こう(6)		

개수본을 중심으로 보면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원간본에서 개수본으로 그대로 쓰인 6예가 존재하며 개수본 중심의 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2.1.3. 중간본 중심

중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원간본에서 개수본을 거쳐 중간본에서 쓰인 2례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2. 「かやう」

먼저 사전적인 어의(語義)를 살펴보면 『日葡』에는「Cayōni.カヤウニ(斯様に) 副詞。このように、あるいは、こんな具合に」로 되어 있다.

2.2.1. 원간본 중심

- 표3 -

	개수본	かやう
원간본		
	かやう(9)	9

원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총9례가 존재하는데, 이는 모두 개수본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예)7 (原) かやうに御いなさるほとにかたしけなうそんしまるする(3-1ウ) 이리
 (改) かやうに御いなさるほとにありかたうそんしまるする(3-2) 이리
 (重) かやうに御いなされましてありかたうそんしまるする(3-2) 이리

위의 예7)의 경우는 원간본의 「かやう」가 개수본 및 중간본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대역은 모두 「이리」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2. 개수본 중심

- 표4 -

	중간본	かやう	삭제
개수본			
	かやう(9)	5	4

개수본을 중심으로 보면,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원간본에서 개수본으로 그대로 쓰인 9례와 개수본 중심의 26례를 합쳐 총35례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3. 중간본 중심

- 표5 -

개수본 \ 중간본	かやう	삭제	기타
かやう(26)	5	6	5

중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원간본에서 개수본을 거쳐 중간본으로 그대로 쓰인 5례와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개수본에서 중간본으로 그대로 쓰인 15례와 중간본 중심의 3례를 합쳐 총23례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こう」와 「かやう」를 삼본(三本)을 통해 살펴본 결과, 원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こう」가 22례, 「かやう」는 9례가 쓰이고 있어 「こう」가 「かやう」보다 훨씬 다용(多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개수본에서는 「こう」가 6례가 쓰이고 있는 반면, 「かやう」의 경우는 총35례가 쓰이고 있어 「かやう」가 「こう」보다도 훨씬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간본에서는 「こう」가 2례가 쓰이고 있는 반면 「かやう」의 경우는 23례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こう」와 「かやう」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こう」의 경우는 원간본에서 개수본 및 중간본으로 갈수록 그 예가 훨씬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かやう」의 경우는 원간본에 비해 개수본 및 중간본에서 훨씬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かやう」가 「こう」에 비해서 정중어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비융합형(非融合形)에 예외바르게 표현한다는 가치감정을 수반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⁷⁾ 또한 원간본에 있어서 「こう」는 그것보다도 성립이 늦은 개수본에 있어서 「かやう」로 보다 오래된 언어로 바뀌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모두 구어체의 범주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양 첩해신어는 현저하게 다른 문체에 속하는 언어를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양 첩해신어의 문체가 다르게 전하는 것은 반드시 원간본의 성립 시기에 이미 다른 한편에 있어서 개수본적 문체의 것도 존재했고, 개수본이 성립된 그 시기에 성립됐다고 볼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양자간의 차이는 문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동시에 시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⁸⁾

7) 安田 章(1973) 「重刊改修 捷解新語解題」 『三本對照捷解新語釋文・索引・解題篇』京都大學 國語國文學會 p.323

は」가 「そうあらは」보다 정중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그러면」에 해당하는 것은 예15), 예16)과 같이 「そうならば」「そうなれば」가 있다.

- 예15) (原) そうならばわたくしにゑることわ御さらんほとに(1-25ウ) 그러면
(改) しからはないしよてもとむることわ御さらねにより(1-38) 그러면
(重) これわわたくしのないしよてもとむることわ御さらぬにより(1-30)

「ならば」는 「なり」계의 지정(指定)의 조동사로서 上方語에서는 「な」가 사용되었다. 「な」에는 終止連體形 「な」외에, 未然形 「なら」, 連用形 「なり」, 已然形 「なれ」가 있었다. 「なら」는 단독으로 또는 「ば」를 수반해서 가정조건의 표현에 사용되었다.

○手すきなら夕方おちゃ。(女殺油地獄)

○他人ならば少々は見逃しにもいたし……取りなしをも申すべき所。(女殺油地獄)

「なら(ば)」는 체언뿐만 아니라 활용어에도 자유롭게 붙는다. 이 결과 가정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なら(ば)」가 담당하게 되었다. 「なら(ば)」의 유래(由來)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定說)은 없지만 형태상에서 보면 미연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활용어의 경우, 근세이후의 가정표현에는 보통 고대어의 已然形에 상응하는 활용형을 대응시킨다. 「なら」와 같이 미연형이 가정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는 적다. 다른 활용어에 준해서 생각하면 「なれ(ば)」가 근세이후의 가정조건으로서 적당하다. 그래서 「なれば→なりゃ→なら」로 음의 변화를 거쳐 성립했다고 하는 설이 나오게 되었다. 「なら」는 활용어에 붙지만, 「なれ」가 활용어에 붙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 점에서 「なら」와 「なれ」는 결부되지 않는다고 말한다.⁹⁾

- 예16) (原) そうなればししやわたれか御わたりて御さるか(5-1ウ) 그러면
(改) しからは御ししやわとなたて御さりまするか(5-1ウ) 그러면
(重) しからは御ししやわとなたにて御さりまするか(5-1ウ) 그러면

「なれば」는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확정조건을 나타낼 때와 가정조건을 나타낼 때가 있다.

○主の身なれば御機嫌よかれが道理の肝腎肝文。(心中天の網島)

9) 松村 明(1972) 前掲書 p.223

○それならば此の小春死ぬるぞ。(心中天の網島)

근세에는 「ならば」보다는 「なら」의 형태가 약간 많다고 하지만, 天草版계통에도 그 예가 나타나지 않으며, 첩해신어 역시 그 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도시대 전기에는 「なら」가 「ならば」와 병행하여 흔히 쓰였다고 한다. 또한 已然形의 「なれば」가 「なら(ば)」와 병행하여 같은 의미의 가정(假定)에 사용되었으나 「ならば」의 세력이 강해 에도시대 후기에는 「なれば」의 가정용법은 쇠퇴하여 버렸다.¹⁰⁾

「그러면」은 『朝鮮語』에 의하면 ㉠(그러하면の省略形)それでは(그렇다면)、それなら(ば)、そうすると、しから(ば)㉡命令形の後に付いて(…しなさい)そうすると、そうすれば、しから(ば)、され(ば)。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러하면」에 해당하는 경우, 원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そうならば」「そうなれば」「そうあらば」가 있는데 이는 개수본에서 모두 「しからは」로 변해 있다. 이것은 의미적인 차이는 거의 없고 관용구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원간본에서는 대개 「ソ」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쓰이고 있으나 개수본·중간본에서는 「しか」가 쓰이고 있다. 물론 원간본에서 「そうならば」「そうなれば」「そうあらば」이외에도 다음의 예17)과 같이 「さらば」가 쓰인 예도 1例 찾아 볼 수 있다.

고대(古代)의 지시어에는 「し」나 지시부사 「しか」가 있고 「ソ」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지시대명사 「サ」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¹¹⁾

예17) (原) さらはあきてさうてんよりしはしまるせうほとに(3-28ウ) 그러면
(改) しかれはみやうこにちさうてんよりはしめませうほとに(3-38ウ) 그러면
(重) しかれはみやうこにちさうてんよりはしめませうほとに(4-1ウ) 그러면

위의 예17)은 「未然形+ば」가 「已然形+ば」로 바뀐 예인데, 접속형태만 다를 뿐 의미상의 차이는 「しからは」와 차이가 없고 관용적 표현으로 쓰였을 뿐이다. 「さらば」는 다음의 예와 마찬가지로 順接의 假定條件을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サアラバ」의 축약형으로 “앞에 기술(記述)된 사항을 받아, 다음에 새로운 행동·판단을 일으키려고 할 때 사용한 다. 「それならば」「それなら」” 라고 설명하고 있다.¹²⁾

○「兵既ニ寺内ニ打入タレバ、紛レテ御出アルベキ方モナシ。サラハ、自害セント思食テ」
(太平記五, 大塔宮態野落事)

10) 此島正年(1966) 『國語助詞の研究』櫻楓社 pp.139~140 參照

11) 橋本四郎(1982) 「指示語の史的展開」 『講座日本語學2 文法史』 p.240

12) 大野 晋(1982) 『岩波 古語辭典』岩波書店 p.577

「しからば(然らば)」는 원래 한문 훈독어(訓讀語)이며, 「さらば」에 비해 문장어(文章語)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한 어휘 대체에 의한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浜田 敦이 지적한 개수방침의 하나인 복고조(復古調)문장의 회귀라고 볼 수 있다.¹³⁾

2.3.2. 개수본 중심

- 표7 -

개수본 \ 중간본	삭제
そう(3)	3

개수본을 중심으로 보면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원간본에서 개수본으로 그대로 쓰인 38예와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개수본 중심의 3예를 합해 총41예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3. 중간본 중심

- 표8 -

개수본 \ 중간본	そう	삭제
そう(38)	22	16

중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표8에서 알 수 있듯이 원간본에서 개수본을 거쳐 중간본으로 쓰인 22예와 중간본 중심의 1예를 합쳐 총23예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きやう」

먼저 사전적인 어의(語義)를 살펴보면 『日葡』에는 「Sayōni.サヤウニ(きやうに)副詞。そのように、あるいは、そんな具合に」로 되어 있다.

13) 池景來(1999) 『捷解新語 일본어 어휘의 계량적 고찰』 전주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박) p.92

중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표10에서 알 수 있듯이 개수본에서 중간본으로 그대로 쓰인 26例와 표11에서 알 수 있듯이 원간본에서 개수본을 거쳐 중간본으로 쓰인 6例, 중간본 중심의 4例를 합쳐 총36例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そう」와 「きやう」를 삼본(三本)을 통해 살펴본 결과, 원간본에서 「そう」가 77例가 쓰였던 것이 개수본에서는 41例, 중간본에서는 23例가 쓰이고 있어 원간본에서 개수본 및 중간본으로 가면서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반면 「きやう」의 경우, 원간본에서는 7例밖에 없던 것이 개수본에서는 43例, 중간본에서는 36例가 쓰이고 있어 「そう」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そう」와 「きやう」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そう」의 경우는 원간본에서 개수본 및 중간본으로 갈수록 그 예가 훨씬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きやう」의 경우는 원간본에 비해 개수본 및 중간본에서 훨씬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どう」

원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예19)와 같이 총1例가 나오는데 이는 개수본 및 중간본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대역은 「아뭇도로나」으로 되어 있는데 『李朝語』에 의하면, ㉠아무쪼로나, 『17세기』에 의하면 ㉡「아무쪼록」으로 되어 있다.

예19) (原) <u>とう</u> なりともよかるやうにしまるせうほとに(4-27)	아뭇도로나
(改) <u>とう</u> なりともよろしいやうにいたしませうほとに(4-38)	아뭇도로나
(重) <u>とう</u> なりともよろしいやうにいたしませうほとに(4-32)	아뭇도로나

「なりとも」도 「でも」와 마찬가지로 사용되었다. 이것도 지정(指定)의 「なり」에 조사 「と」, 또는 「とも」가 붙어 연어(連語)처럼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⁴⁾

「아뭇도로나·아뭇도로나」는 「아무쪼록」의 뜻으로 『朝鮮語』에 의하면 ㉢「必ずや、きっと(꼭)、できるだけ、何とぞ、どうか(모쪼록)、くれぐれも」반면 개수본을 중심으로 보면, 형태적으로는 총6例가 나오는데 이 중 5例는 예20~23)와 같이 「どうして」의 형태로 한국어역 「어이하여, 어이, 언디하여, 아모리하여도」의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예24)와 같이 1例만 「아모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는 원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なんとして(1例)」「なせに(1例)」「そむやそむ(1例)」「いかに(1例)」「のうして(1例)」가 개수본에서 「どうして」로 바뀌어 「어이하여, 어이, 언디하

14) 松村 明(1972) 前掲書 p.231

여, 아모리혀도」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이-, 어이, 언디-」를 『李朝語』 및 『17세기』에 의하면, ㉠어이-, 어찌- 의 뜻으로, 『우리말』에 「어이」는 「어찌」의 예스러운 말로, 「어찌」를 찾아보면 ①어떠한 방법으로 ②어찌하여 ③어떻게 그렇게 ④어떻게, 의 의미로 되어 있다. 『朝鮮語』에 의하면 「어이」㉠ 「どうして、なぜ」로 「어찌」는 ㉠①どう、どのように、いかに(어떻게)②なぜ(왜)、どうして(어째서)③(-ㄴ지·-르지·-던지)とともに用いて)あまりにも(어찌나), なんと…か ④「(反語的に)どうして … (だろうか), いかに」로 되어 있다.

- | | |
|--|--------|
| 예20) (原) なにふねかなんとしておくれまるしたか(1-11ウ) | 어이혀여 |
| (改) なにふねか <u>とう</u> しておくれまして御さるか(1-16) | 어이혀여 |
| (重) とのふねか <u>とう</u> しておくれまして御さるか(1-14ウ) | 어이혀여 |
| 예21) (原) こちもこのやうなことおなせにたしかにしりませうか(2-10ウ) | 어이 |
| (改) このはうもさやうなこと <u>おとう</u> していさいにしりませうか(2-14ウ) | 어이 |
| (重) このはうもさやうなこと <u>おとう</u> していさいにしりませうか(2-19ウ) | 어이혀여 |
| 예22) (原) そむやそもこしつそくいれたこうもくお(4-16) | 어드 셔 |
| (改) <u>とう</u> してこしつそくいれたこうもくお(4-22ウ) | 언디혀여 |
| (重) <u>とう</u> してこしつそくいれたこうもくお(4-21) | 언디혀여 |
| 예23) (原) のうしてもとともとることわ御さるまいほとに(8-6) | 아무리혀여도 |
| (改) <u>とう</u> してもとつつかゑりかたう御さるほとに(8-8) | 아모리혀여도 |
| (重) なにふんに御さつてもとりかゑりかたう御さるほとに(8-7ウ) | 아모리혀여도 |

위의 예23)의 경우 개수본의 「どうして」에 대응하는 원간본에서는 「のうして」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방언적 요소라기 보다는 「d과n, r과n, s와t·ts」와의 혼동(混同)에 의한 조선인적 오류의 정정(訂正)에 의해서 개정(改正)되었던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즉 조선인의 해석에 의해 개변(改變)되어 있는 것으로 일본어의 [d]가 [n]으로 받아들여진 예라고 말할 수 있다.

「のう」의 경우 원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위의 예를 제외하고 2例(총3例)가 나오는데, 1例는 6-24ウ에서 「のうても」가 개수본 및 중간본에서 「いかやうとも」로 바뀐 것과 나머지 1例는 8-8ウ에서 「のう」가 개수본 및 중간본에서 「なにふんに」바뀐 것이다.

중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개수본에서의 「どうして」4例 중 3例는 그대로 쓰이고 1例만 「なにふん」으로 바뀌어 쓰이고 있으며 1例의 「どう」는 개수본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다.

2.6. 「どうもこうも」

원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예24) 예25)과 같이 총2예가 나오는데, 이 중 1례는 예24)의 경우와 같이 개수본 및 중간본에서 「ともかくも」로 바뀌어져 쓰이고 있으며, 1례는 예25)과 같이 개수본 및 중간본에서 삭제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대역을 보면 예24)의 경우는 「이러나더러나, 이러나저러나, 예25)의 경우는 「더러타이러타」로 되어 있다. 예24)의 경우는 「이러나더러나」는 구개음화에 의하여 「이러나저러나」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李朝語』에는 나오지 않고, 『17세기』에는 「이러나더러나」^㉞ 「이러나저러나」의 뜻으로, 『우리말』에는 「이러나저러나」는 ①이러하거나 저러하거나 어쨌든 ②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어쨌든, 의 뜻으로 되어 있다. 「이러나저러나」는 『朝鮮語』에 의하면 ① 「(이러하나저러하나의縮約)あであれこうであれ、どうであれ、なんにせよ、どっちみち、ともかくにも」^㉞ ② 「(이러하나저러하나의縮約)どんなにしても、どうでも、どうにでも」로 되어 있다.

예25)의 경우는 「더러타이러타」는 『李朝語』 『17세기』 『우리말』의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며 「이러타저러타」를 『朝鮮語』에서 찾아보면 「이렇다-저렇다, ①^㉞ 「あだこうだと、とやかく、どうのこうのと、なんのかのと、いろいろ(言う・聞く)」로 쓰여져 있다.

예24) (原) <u>どうもこうも</u> おしるままにして(4-5ウ)	이러나더러나
(改) <u>ともかくも</u> おつしやるたうりにして(4-8)	이러나저러나
(重) <u>ともかくも</u> おつしやるたうりにして(4-8)	이러나저러나

3

위의 예24)의 경우 원간본의 「どうもこうも」가 개수본 및 중간본에서 「ともかくも」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ともかくも」의 경우 『日本國語大辭典』에 「ともかくも」^㉞ ①どのようにでも、なんどでも、また、なんとも ②一應別として、なにはともあれ. 「どうもこうも」는 『日葡』에는 보이지 않고, 『日本國語大辭典』에는(打消を伴って)全然, まったく. 또한, 『時代別』에 「どうもこうも」는 없고, 「ともかくも」^㉞ 「左右」(天正節用・運歩) 「左之右之」(易林節用) ①或る事態に對して、あれこれと試みるさま②想定しうるいずれの場合をも包括して選擇をゆだねるさま ③相手のいずれのやり方に對してもいっさい異存をさしはさまず、すべてをゆだねるさまを表わす. 『日葡』에는 「Tomocaumo. トモカクモ(ともかくも)どのようであろうと、あるいは、どのようにしてでも」와 같이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どうもこうも」의 경우 『日本國語大辭典』에 의하면 부정을 수반하여 「全然, まったく」의 의미이지만, 「ともかくも」의 경우에는 뒤에 부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없어 용법상에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25) (原) どうもこうも申されんか(4-12ウ)

더러타이러타

(改)

(重)

「どうもこうも」와 같은 의미로 쓰인 「ともかくも」의 경우, 원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총 3례가 나오는데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역은 「이러나더러나, 이러나저러나」로 대역되어 있다. 또한 1례는 「どうもこうも」의 경우, 예25)와 같이 「더러타이러타」로 대역되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어로 쓰인 문장을 우리말로 대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뜻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한(日韓)대역에서 오는 오역(誤譯)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점중의 또 하나는 첩어(疊語)를 만들 때 예를 들면 한국어는 「이럭저럭, 이러나저러나, 이랬다 저랬다, 이모저모, 이쪽저쪽, 이나 저나, 이리저리, 이리쿵저러쿵, 이만저만, 이렇든저렇든, 이리나저러니」와 같이 「이+저」, 「그럭저럭, 그랬다 저랬다, 그러니 저러니, 그러나 저러나, 그리저리, 그나저나」와 같이 「그+저」로 이루어져 그 결합은 ‘이’나 ‘그’뒤에 ‘저’가 뒤따라야 한다.¹⁵⁾이와 같이 「저」가 다른 유사한 지시어들을 포함하여 일부 다른 어사들과 결합할 때, 「저」가 가장 뒤에 오는 것은 그만큼 「저」가 지시 의미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¹⁶⁾

3. 결론(結論)

이상과 같이, 『捷解新語』에 있어서 지시부사 「こう」「かやう」「そう」「さやう」「どう」「どうもこうも」에 대해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こう」와 「かやう」를 삼본(三本)을 통해 살펴본 결과, 원간본을 중심으로 보면 「こう」가 22례, 「かやう」는 9례가 쓰이고 있어 「こう」가 「かやう」보다 훨씬 다용(多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개수본에서는 「こう」가 6례가 쓰이고 있는 반면, 「かやう」의 경우는 총35례가 쓰이고 있어 「かやう」가 「こう」보다도 훨씬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간본에서는 「こう」가 2례가 쓰이고 있는 반면 「かやう」의 경우는 23례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こう」와 「かやう」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こう」의 경우는 원간본에서 개수본 및 중간본으로 갈수록 그 예가 훨씬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かやう」의 경우는 원간본에 비해 개수본 및 중간본에서 훨씬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15) 박영환(1991) 『指示語의 意味機能』韓南大學校 出版部 p.110

16) 박영환(1991) 前掲書 p.101

있다.

「そう」와 「さやう」를 삼본(三本)을 통해 살펴본 결과, 원간본에서 「そう」가 77례가 쓰였던 것이 개수본에서는 41례, 중간본에서는 23례로 쓰이고 있어 원간본에서 개수본 및 중간본으로 가면서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반면 「さやう」의 경우, 원간본에서는 7례밖에 없던 것이 개수본에서는 43례, 중간본에서는 36례가 쓰이고 있어 「そう」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そう」와 「さやう」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そう」의 경우는 원간본에서 개수본 및 중간본으로 갈수록 그 예가 훨씬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さやう」의 경우는 원간본에 비해 개수본 및 중간본에서 훨씬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そう」의 경우, 원간본의 「そう」가 개수본에서 「かやう」로 바뀌어져 있는 1례가 존재하는데 이는 「さやう」가 잘못해서 「かやう」로 바뀐 것은 아닌가하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간본에 있어서 「こう」「そう」는 그것보다도 성립이 늦은 개수본에 있어서 「かやう」, 「さやう」로 전해져 보다 오래된 언어로 바뀌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 첩해신어는 현저하게 다른 문체에 속하는 언어를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양 첩해신어의 문체가 다르게 전하는 것은 반드시 원간본의 성립시기에 이미 다른 한편에 있어서 개수본적 문체의 것도 존재했고, 개수본이 성립된 그 시기에 성립됐다고 볼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양자간의 차이는 문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동시에 시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첩해신어에서만 나타나는 언어의 양상인지 아니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언어양상인지에 대해서는 동시대의 보다 많은 문헌과의 대조 검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どうもこうも」의 경우, 「더러타이러타」로 대역되어 있는 것은 일한(日韓)대역에서 오는 오역(誤譯)이라 여겨진다.

이상, 지시부사 「こう」「かやう」「そう」「さやう」「どう」「どうもこうも」의 출현분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12와 같다.

－ 표12 －

	원 간 본	개 수 본	중 간 본
こう	22	6(6,0)	2(2,0,0)
かやう	9	35(9,26)	23(5,15,3)
そう	77	41(38,3)	23(22,0,1)
さやう	7	43(7,36)	36(6,26,4)
どう	1	6(1,5)	4(1,3,0)
どうもこうも	2	0	0

※「そう」의 경우, 원간본에서는 총77례가 존재하며, 개수본에서는 총41례가 존재하는데, 괄호 안

의 38의 숫자는 원간본에서 개수본으로 그대로 쓰인 것을 의미하며, 3의 숫자는 개수본을 중심으로 한 예가 3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간본에서는 총23례가 존재하는데 괄호 안의 22의 숫자는 원간본에서 개수본을 거쳐 중간본으로 그대로 쓰인 것을 의미하며, 0의 숫자는 개수본에서 중간본으로 쓰인 용례가 없다는 것을, 1의 숫자는 중간본을 중심으로 한 예가 1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參考文獻】

- 박영환(1991) 『指示語의 意味機能』 韓南大學校 出版部. 101~110쪽
- 李康民(1996) 「『捷解新語』와 日本語史」 『漢陽 日本學』 漢陽日本學會 第4輯. 24쪽
- 池景來(1999) 『捷解新語 일본어 어휘의 계량적 고찰』 전주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박사학위논문). 92쪽
- 橋本四郎(1982) 「指示語의 史的展開」 『講座日本語學2 文法史』 明治書院. 240頁
- 濱田 敦(1970)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 岩波書店. 187~188頁
- 三宅武郎(1934) 「音聲口語法」 『國語科學講座7』 明治書院. 35頁
- 時枝誠記(1950) 『日本文法 口語篇』 岩波全書. 66~67頁
- 松村 明(1972) 『國語史概說』 秀英出版. 223~231頁
- 松下大三郎(1930) 『標準日本口語法』 中文館書店. 110頁
- 安田 章(1973) 「重刊改修 捷解新語解題」 『三本對照捷解新語釋文·索引·解題篇』 京都大學國語國文學會. 323頁
- 安田 章(1980) 「捷解新語의 改訂覺書」 『朝鮮資料と中世國語』 笠間書院. 168頁
- 櫻井光昭(1971) 『講座國語史5 敬語史』 大修館書店. 185~186頁
- 此島正年(1966) 『國語助詞の研究』 櫻楓社. 139~140頁

要 旨

捷解新語における指示副詞「こう」「かやう」「そう」「さやう」「どう」「どうもこうも」について考察した結果、つぎのような結論が得られた。「こう」と「かやう」の関係及び「そう」と「さやう」との関係を通三本を通してわかったことは、「こう」と「そう」の場合は原刊本から改修本及び重刊本へ移行するほどその例がずっと減少している傾向をみせている反面、「かやう」と「さやう」の場合は原刊本と比して改修本及び重刊本ではずっと多く使われ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そう」の場合、原刊本の「そう」が改修本で「かやう」に替えられている1例が存在するが、これは「さやう」をまちがえて「かやう」にとりかえ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根拠を提示したことがあるが、これについてもより細密な検討がなされることと思われる。

原刊本において「こう」「そう」はそれよりも成立が遅い改修本において「かやう」「さやう」という、より古めかしい語に置き換えら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兩捷解新語は著しく異なる文體に屬する言語を反映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と思う。兩捷解新語の文體が異なるということは、必ずしも原刊本の成立の時期にすでに、一方において改修本の文體のものも存在し、改修本の成立したその時期に成立したとみるべきものであろう。とすれば、兩者の間の差異は文體的なものであると同時に、時代の反映でも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については捷解新語だけに表す言語の様相なのか、それともその時代の一般的な言語の様相なのかについては同時代のより多くの文獻との對照・検討を通して具體的で詳細に研究してみたい。

または「どうもこうも」の場合、「더러타이러타」と對譯されているものは日韓對譯からみられる誤譯であ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指示副詞, 同時代の反映, 日韓對譯, 誤譯の可能性, 文體的なもの

투 고 : 2003. 11. 28

2차 심사 : 2003. 12. 19

3차 심사 : 2004. 1. 8

住 所 : (361-800) 忠北 清州市 興德區 佳景洞 815(3層)

電 話 : 043-231-5250

E-mail : kdhjuso@orgio.net